

“삶의 질 높은, 동북아 평화중심도시 ‘서울’ 만들 것”

박원순 ‘서울 10년 혁명’ 구상은
카드수수료 인하·유급병가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역점
성평등 전담팀 신설 정책 구체화
빠른 시일 내 평양 방문 추진도

‘어시박’(어차피 시장은 박원순). 예상대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 시장으로 최종 당선됐다. 3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오는 2022년 6월까지 10년 8개월간 서울시정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박 시장은 후보시절 때부터 줄곧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강조하며, 앞으로 서울시장으로서 4년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삶의 질이 높아진 서울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해 왔다. 또한 최근 싱가포르에서 성사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해, ‘동북아평화도시’로서의 서울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시민의 삶 바꾸는 10년 혁명’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의 4년 동안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진 세계적인 도시로 서울을 거듭나게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년 보다 더 큰 서울의 변화를 목표로 한 박 시장은 앞서 선보인 공약에서 ▲사람 중심 ▲문재인 정부 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눈스퀘어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집중유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1의 성공파트너 등을 핵심 기조로 했다.

박 시장은 특히 1000만 서울 인구 중 100만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임대료만큼 부담스러운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폐업자 회생을 돕는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 구축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등을 앞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30%에 시가 20%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청년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간

1000억원 상당의 기금을 마련,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연이자 0.5%)에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주택 14만5000호를 공급하고 서울시위원회에도 34세 미만 청년을 15%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박 시장은 중앙정부, 수도권, 동북아 등 국내외로 대기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베이징시와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술, 정보, 인적분야와 관련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평등 도시’ 서울의 구현을 위해서는 박 시장은 서울시청 여성가족실 내 성평등정책과, 성평등노동정책팀, 젠더폭력예방 부서 등을 신설해 성평등 정책을 구체화하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동북아평화도시’ 서울, “빠른 시일 내 평양 가겠다”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박원순 시장은 동북아 평화를 견인하고 평양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서울의 입지와 역할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이날 박 시장은 “평화는 서울의 잠재력을 복원시키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동북아 평화중심도시 서울을 본격적으

로 준비할 때”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하겠다”고도 했다. 그가 그려온 ‘서울-평양 포괄적 교류협력 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될지도 기대를 모은다. 박 시장은 외교나 안보 등 분야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다면, 실제 시민 삶과 관련해서는 서울 대 평양과 같이 도시 대 도시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그는 앞으로 남북 경제교류가 활성화될시 양국 경제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과거 7년 서울시장… 그동안의 성과

그동안 박 시장이 주도해온 지난 6여년 동안 서울시의 채무는 8조원이 감축됐다. 사회복지예산은 두 배 올랐다. ▲2012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2013년 올빼미 심야버스, 여성안심택배 ▲2014년 리모델링한 세운상가에 청년 스타트업기업 입주,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 ▲2015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6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 이상 공급 ▲2017년 서울역 일대 고가보행길 연결 ▲2018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만명 돌파 등이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박 시장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정업무에 복귀한다. 민선 7기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개표 임박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끝난 1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 마련된 성동구개표소(왼쪽)와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광진구개표소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PK 보수 붕괴... 경남지사·부산시장 첫 진보 지자체장

‘왕의 남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4수생’ 오거돈 보수 텃밭서 당선

부산·경남(PK) 지역의 철옹성 같던 보수 세력이 무릎을 꿇었다.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잡았다. PK에서 모두 진보 지자체장이 나온 것은 사상 처음이다.

4수생 오거돈 후보가 서병수 현 시장을 멀찌감치 제치고 부산시장으로 당선됐다. 4년 전 간발의 차(1.3%포인트)로 서병수 후보에게 패했던 오거돈 당선자는 무소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달고 나온 이번 선거에서 서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오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서 후보를 앞서나갔다. 해수부 장관 출신인 오 당선자가 부산에 적합한 정무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 기대가 기반으로 작용했다. 또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라는 점도 부산 시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

오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청년 자산가 키우기’ 역시 신선한 공약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시재생사업과 대규모 주택 및 산업용지 개발 과정에서 청년에게 ‘적립식 우선 매입권’을 부여하거나 ‘적립식 청년 간접투자상품’을 개발해 상업용 복합건물 등에 대한 자본투자 또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

체적인 계획안도 내놨다. 반면 서병수 현 부산시장의 ‘심판론’도 오 당선자의 승리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금지하려고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압력을 행사했고, 서 시장이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금까지도 부산시는 BIFF의 운영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오 당선자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하며 영화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부산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오 당선자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부산 민심은 가덕도의 경제성을 의심하는 시각과 인천공항처럼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경남에서는 노무현의 ‘복심’으로 불렸던 김경수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됐다. 김경수 당선자 역시 지난 2012년 총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보수의 텃밭인 경남에 도전하며 조금씩 입지를 다져나갔다. 머리가 땅에 닿을 듯이 출근길 인사를 하는 모습은 김 당선자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이에 지난 지방선거 낙선 후 경남에서는 “다음엔 김경수”라는 여론이 커지기도 했다.

또 꺼져가는 경남의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민심도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당선자는 선거운동 내내 “대통령과 여당의 지원을 받아 예산을 쏟아부을 정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경남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김 당선자의 주요 공약은 ‘제조업 르네상스’다. 그는 조선·기계부품 위주의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한 경남의 일자리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조업을 혁신하고 산업지도를 확대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다만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선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남이 ‘통 큰 지원’ 받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상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이에 대해 주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남에 예산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힘을 실어준 상태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